

## 경남지역 초등학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윤현숙<sup>†</sup> · 노정숙<sup>1)</sup> · 허은실

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학과<sup>1)</sup>

### Percep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Nutrition Education in the Kyungnam Area

Hyun Sook Yoon,<sup>†</sup> Jung Suk Ro,<sup>1)</sup> Eun Sil Her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sup>1)</sup>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nutrition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s. A total of 226 elementary school teachers within Changwon and Milyang city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90.8%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curriculum of elementary schools, and positive responses in the Milyang urban area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Changwon rural area( $p < 0.001$ ). The main reason for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was for proper growth and good table manners and the Milyang urban city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ree other classes in 'for proper growth'( $p < 0.05$ ). The starting period for nutrition education was supported by 72.1% of the teachers as being when the children are in kindergarten, proving that this early nutrition education is supported. Especially in the Changwon urban support was higher than in the three other classes( $p < 0.01$ ). The perceptions about a suitable person to teach nutrition indicated parents(39.6%), dietitians(35.5%), class teachers(24.9%), and the beliefs about nutrition specialists or dietitians was very low. 53.6%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would not teach nutrition education themselves and the main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believed the teacher's work would be too hard(32.0%), lack of nutrition knowledge(29.4%), and that such courses should be taught courses by specialists(29.4%). However, 51.6% of the teachers disagreed with having a separate course for nutrition education. Proper eating habits(62.7%) and growth and nutrition(28.6%) were the main categories within nutrition education. The teacher recognized that elementary students' nutrition problem is to eat too much processed and instant foods(39.1%), deviated foods(36.9%), and lack of table manners(19.4%). The most effect method was to link the subject matter with the parents(38.7%), use of audio visuals and education materials(28.3%), and need of nutrition education teachers(10.1%) was low.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1) : 84~90, 2001)

KEY WORDS : nutrition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 perceptions of teachers.

#### 서론

학동기의 영양은 신체의 성장발육 뿐만 아니라 지적, 정  
신적, 사회적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영  
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식사의 양과 질을 충실히 하여야 한

채택일 : 2001년 1월 9일

<sup>†</sup>Corresponding author : Hyun Sook Yoo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  
angwon, Kyongnam 641-773, Korea

Tel : 055) 279-7482, Fax : 055) 279-7480

E-mail : hsyoun@sarim.changwon.ac.kr

다(김선희 · 김숙희 1983 ; Graham 1981).

학교급식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의 적정  
을 기함으로써 심신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장래의 식  
생활 영위에 필요한 기초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바람직한  
식습관 함양으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꾀하는 동시에 원  
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  
정한 지도목표를 설정, 계획해 실시하는 집단급식으로 정의  
된다. 또한 그 목표 달성에 있어 적절한 식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요한 식품영양 관련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영양교육이 필수적  
이다(학교급식지도서 1993).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이끄는 것은 굳어진 성인의 식습관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낮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강명희 2000). 또한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파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성장기의 영양공급에 관여하는 학교급식 영양사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학교급식 발전을 살펴보면 급식업무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학생들의 식습관 교정을 위한 적극적인 영양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아동의 영양문제들이 방치되고 있다(김현아·김은경 1996; 김혜자 1995; 한혜영 등 1997). 또한 제도적으로도 학교에서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송광용; 1997).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과학 등의 과목을 담임이 맡지 않고 전담해 가르치는 교과전담교사제가 교육수요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교과를 보다 전문적인 학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영양교육도 전문인인 학교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을 교과전담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영양사는 학교장, 교사, 교육행정이 등이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학교 영양사가 교사가 되어 급식시간 이외의 정규수업시간이나 특활시간을 이용해 직접 교실에서 영양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이다(구재욱 1999; 송광용 2000). 그 기초작업으로 본 연구는 경남 소재 밀양시와 창원시에서 아동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 조사대상 및 기간

###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밀양시와 창원시 소재 70개교 초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식품비 지원수준에 따라 급식유형별로 밀양도시, 밀양농촌, 창원도시, 창원농촌형으로 나눈 후 집락추출법을 이용하여 19개 초등학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기존의 자료(김은경 1996; 문수재 등 1994; 서은나·김초강 1998; 정은자 1996)를 토대로 하여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일반사항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응답의 용이성, 타당성,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양 시내 2개 초등학교 교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1998년 9월 29일에서 10월 2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인 학교영양사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 설문내용과 기재요령 등을 설명한 후 이들을 통해 해당교사에게 설문지를 배부, 현장에서 대상자가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배부한 300부 중 회수된 226부(회수율: 75.3%)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내용

일반사항으로 성별, 연령, 결혼유무, 최종학력, 교직근무기간, 학급 학생 수를 조사하였다. 응답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있어 영양교육의 필요성, 영양교육의 시작시기, 영양교육 실시에 적당한 시간, 영양교육의 주된 담당자, 영양교육의 내용, 영양교육의 효율적인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7.5 K(이경혜 등 199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사항은 빈도분석을 하였고,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도 변수들은 성별, 급식유형별로 교차분석하였다.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은  $\chi^2$ -test를 이용하였다.

## 연구결과 및 고찰

### 1. 일반사항

Table 1에서와 같이 남교사 32.3%, 여교사 67.7%로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eachers

	Characteristics	N	%
Sex	Male	73	32.3
	Female	153	67.7
Age(years)	20 - 29	74	32.6
	30 - 39	74	32.6
	40 ≤	78	34.8
Marriage	Married	175	77.4
	Not married	51	22.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6	2.7
	Junior college	11	4.9
	College of education	186	82.3
	University	14	6.1
Teaching period(years)	Graduate school	9	4.0
	< 5	48	21.2
	5 - 10	41	18.2
	10 - 15	38	16.8
Teaching grade	≥15	99	43.8
	Lower	108	47.7
	Upper	105	46.3
School dietitian	Whole	13	6.0
	Yes	220	97.3
	No	6	2.7
Total		226	100.0

경남 공립초등학교의 남녀교사비율인 28.3 : 71.7(경남통계연보 1998)과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40대 이상이 34.8%, 20대, 30대가 각각 32.6%로서 연령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결혼유무에서 대부분이 기혼 교사(77.4%)였고, 최종학력이 교육대학 졸업인 교사가 8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교직근무기간은 25년 이상이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년 미만 21.2%, 5~10년 미만과 10~15년 미만이 각각 18.2%, 16.8%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학년담당은 저학년 담임이 47.7%, 고학년 담임이 46.3%이었으며,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이상이 전체의 75.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교사는 저학년에 비하여 고학년 담임이 많았고, 여교사는 고학년에 비하여 저학년 담임이 많아 반대 양상을 보였다. 전체의 97.3%가 학교 영양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2.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 인식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사는 90.8%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Table 2).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은나·김초강(1998) 연구에서도 91.9%의 교사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구재욱(1999)의 연구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96.7%, 전국 급식초등학교 학부모의 93.0%가 초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사, 학교장, 학부모 모두가 초등학교에서의 영양

교육에 대한 견해가 매우 긍정적이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급식유형에 있어서 밀양도시형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100%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창원 농촌형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77.1%만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한 이유(Table 3)로는 '적절한 성장발육을 위하여' 67.7%, '바른 식사예절 확립을 위하여' 20.6%, '편식교정을 위하여' 9.5%, '기타' 2%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에서는 '영양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와 '비만학생의 영양지도를 위하여'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다. 급식유형별로는 밀양도시형 급식학교 근무교사의 78.0%가 '적절한 성장발육을 위하여'에 답한 반면 밀양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적절한 성장발육을 위하여'에 55.3%, '바른 식사예절을 위하여'에 34.1%가 답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염초애 등(1995)은 급식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중복응답)에서, 교장선생님은 '편식교정을 위하여'(82%)와 '바른 식사예절 확립을 위하여'(70%)에 높은 반응을 보였고, 학부모가 바라는 영양교육 내용에서는 '바람직한 식습관 유도'(54.1%), 편식교정(29.3%), 식사예절(20.4%)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관리자나 학부모들은 편식교정, 식사예절,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등을 위하여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oughts about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Variable	Characteristics	Yes	No	Total	%	$\chi^2$
Sex	Male(n = 70)	90.0	10.0	31.8	0.103	
	Female(n = 150)	91.3	8.7	68.2		
Type of school food service	Milyang urban(n = 52)	100.0		23.7	19.807***	
	Milyang rural(n = 50)	98.0	2.0	22.7		
	Changwon urban(n = 70)	88.6	11.4	31.8		
	Changwon rural(n = 48)	77.1	22.9	21.8		
Total		90.8	9.2	100.0		

\*\*\* :  $p < 0.001$

**Table 3.** Reason nutrition education is necessary

Variables	Characteristics	Proper growth	Good table manners	Correction of incorrect food habits	Others	Total	%	$\chi^2$
Sex	Male(n = 60)	66.7	18.3	13.3	1.7	31.7	1.664	
	Female(n = 129)	68.2	21.7	7.8	2.3	68.3		
Type of school food service	Milyang urban(n = 50)	78.0	14.0	8.0		26.5	17.788*	
	Milyang rural(n = 47)	55.3	34.1	10.6		24.9		
	Changwon urban(n = 57)	68.4	21.0	8.8	1.8	30.1		
	Changwon rural(n = 35)	68.6	11.4	11.4	8.6	18.5		
Total		67.7	20.6	9.5	2.1	100.0		

\* :  $p < 0.05$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한 교사들의 일부(9명)는 그 이유로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67.7%), '식습관이나 영양은 단시간에 고치기 힘들므로'(22.2%), '현재 학교교육이 충분히 영양교육을 하고 있으므로'(11.1%) 등을 들고 있었다.

### 3. 영양교육의 시작시기

영양교육의 시작시기는 Table 4에서와 같이 '유치원' 72.1%, '초등학교' 22.5%, '중학교' 5.4%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는 서은나·김초강(1998)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식습관은 유아기, 아동기에 형성되어 청소년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장기간 투자하여야 하며, 한 번 형성된 식습관은 바꾸기가 용이하지 않다(박복해 1985). 또한 이전에 행해진 유치원 대상 영양교육의 효과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강현주 등 2000; 임경숙 등 1999; Davis 1983; Skinner 등 1985) 유치원시기부터 영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급식유형별로는 창원도시형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치원'시기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p < 0.001$ ).

### 4. 영양교육 담당자

영양교육 담당자로는 누가 적합한가라는 문항에 '학부모' 39.6%, '영양사' 35.5%, '담임교사' 24.9% 순으로 응답하여(Table 5)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서은나·김초강

1998)의 '학부모' 29.4%, '담임교사' 29.2%, '학교급식 영양사' 25.9%에 비하여 '학부모'와 '영양사'에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급식유형별로 보면 창원 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학부모'에 50.0%를 보인 반면 밀양 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영양사'에 41.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p < 0.05$ ). 김은경(1996)의 연구에서는 영양사의 96.8%가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도시형이 59.6%인 반면, 농어촌형과 도서벽지형이 각각 43.7%와 44.8%로 나타났다.

한편 구재욱(1999)의 보고에 의하면 학교장의 83.2%, 학부모의 85.7%가 영양교육 담당의 적임자로 영양사를 들고 있어 교사들과는 달리 영양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 5. 영양교육 담당의지

본 연구대상인 교사들은 영양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할 수 있다는 의견이 46.4%,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53.6%로 나타나 서울지역 교사들(서은나·김초강 1998)의 말할 수 있다는 의견 96.7%, 없다는 의견 3.3%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서울에 비해 영양교육을 맡지 않으려는 일반교사가 더 많았다. 맡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 32.0%, '전문지식 부족' 29.4%,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 29.4%, '학부모가 해야 함' 5.5%, '담임이 해야 함' 3.7%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전문가의 영양교육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각 변수간에 유의적

Table 4. Starting period of nutrition education

Variables	Characteristics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Total	$\chi^2$
Sex	Male(n = 71)	67.6	28.2	4.2	32.0	2.036
	Female(n = 151)	74.2	19.8	6.0	68.0	
Type of school food service	Milyang urban(n = 54)	75.9	24.1		24.4	25.488***
	Milyang rural(n = 50)	66.0	32.0	2.0	22.5	
	Changwon urban(n = 70)	80.0	17.1	2.9	31.5	
	Changwon rural(n = 48)	62.5	18.7	18.8	21.6	
Total		72.1	22.5	5.4	100.0	

\*\*\* :  $p < 0.001$

Table 5. Suitable person to teach nutrition

Variables	Characteristics	Parents	Class teacher	Dietitian	Total	$\chi^2$
Sex	Male(n = 71)	31.0	26.7	42.3	32.7	3.502
	Female(n = 146)	43.8	24.0	32.2	67.3	
Type of school food service	Milyang urban(n = 54)	44.4	14.8	40.8	24.9	12.602*
	Milyang rural(n = 48)	25.0	33.3	41.7	22.1	
	Changwon urban(n = 68)	34.0	34.0	32.0	31.3	
	Changwon rural(n = 47)	50.0	20.6	29.4	21.7	
Total		39.6	24.9	35.5	100.0	

\* :  $p < 0.05$

인 차이는 없었다. 김은경(1996)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로 농어촌형과 도서벽지형은 '학교의 협조부족'을 제일 먼저 꼽고 있는 반면 도시형의 경우 '업무 시간 부족'과 '학교의 협조부족'을 들고 있어 교사와는 다른 이유를 꼽고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사의 인식(Fig. 1)은 '반대한다' 51.6%, '보통이다' 30.6%, '찬성한다' 17.8%로 나타나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독립교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은나·김초강(1998)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구재욱(1999)의 전국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의 확대방안으로 월별 1~2시간 정도의 영양교육의 독립교과시간 신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여 교사와 영양사간의 인식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

교사들이 영양교육 내용 중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 62.7%와 '성장과 영양' 28.6%이었다 (Table 6). 서은나·김초강(1998)에서는 '올바른 식습관' 35.1%, '성장과 영양' 17.6%, '영양과 질병' 15.1%을 들어 지역별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었고, 구재욱(1999)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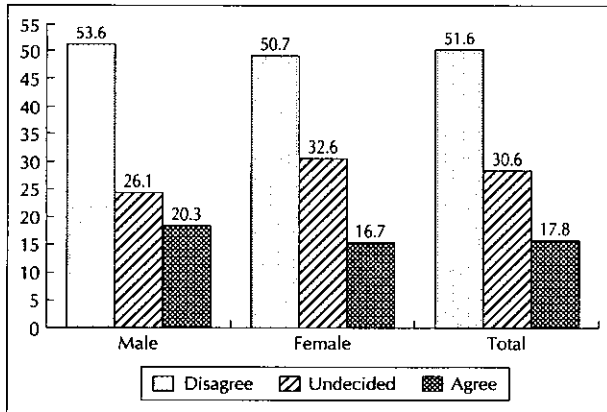


Fig. 1. Dependent subject in curriculum.

Table 6. Contents of nutrition education %

Variables	Characteristics	Proper eating habits	Growth and Nutrition	Menu planning	Food safety	Diseases	Total	$\chi^2$
Sex	Male(n = 71)	60.0	32.9	2.9	1.3	2.9	32.7	1.997
	Female(n = 147)	63.9	26.5	2.1	4.1	3.4	67.3	
Type of school food service	Milyang urban(n = 53)	67.9	24.4	1.9	3.8		24.9	6.914
	Milyang rural(n = 48)	64.6	25.0	2.0	4.2	4.2	22.1	
	Changwon urban(n = 68)	57.4	32.4	4.4	1.5	4.3	31.3	
	Changwon rural(n = 48)	62.5	29.2		4.2	4.1	21.7	
	Total	62.7	28.6	2.3	3.2	3.2	100.0	

에서 교장 선생님은 '편식교정' 49%, '영양지식' 17.8%, '식사예절' 17.6%을, 그리고 학부모(중복응답)는 '바람직한 식습관 유도' 54.1%, '편식교정' 29.3%, '식사예절' 20.4%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 학부모, 교장선생님 모두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식습관은 적절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여 신체 발육을 양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안정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김혜자 1995), 학동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영양교육내용에 '올바른 식습관'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에 교사, 학부모, 관리자 모두가 공감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교사가 느끼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영양에 대한 문제점은 '가공 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의 과잉 섭취'가 39.1%, '편식'이 36.9%, '식사예절 부족'이 19.4%, '비만'과 '기타'가 각각 2.3%로 나타났다(Fig. 2). 서은나·김초강(1998)등의 연구에서 서울지역 교사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영양 문제는(중복응답)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 과잉 섭취' 87.5%, '편식' 68.4%, '식사예절 부족' 56.8%, '비만' 47.2%로 나타나 비만을 심각한 영양 문제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비만에 대한 인식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7. 효율적인 영양교육 방안**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영양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은 '가정과 연계지도체계' 38.7%와 '영양교육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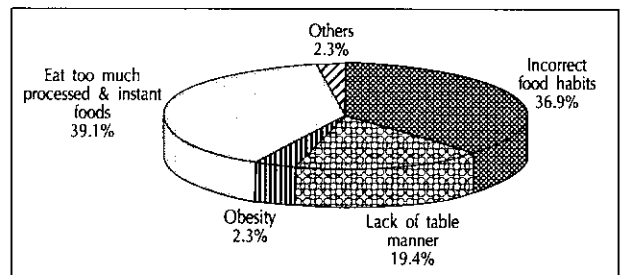


Fig. 2. Elementary student's nutrition probl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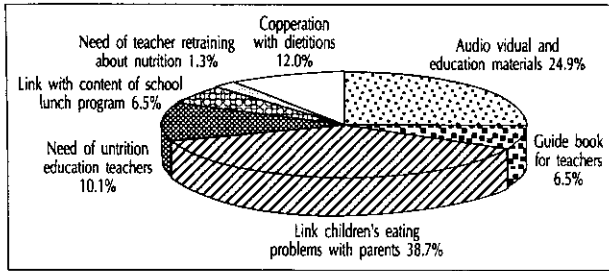


Fig. 3. Effective methods for nutrition education.

실시하기 위한 시청각 자료 및 교구'가 24.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양교육 교사 필요'가 10.1%, '교사를 위한 참고자료'와 '급식내용과의 연계실시'가 각각 6.5%로 나타났다. '교사의 영양교육 연수 필요'는 1.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Fig. 3). 특히 '영양교육 교사필요'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 영양사의 교사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서은나·김초강(1998)의 연구에서는 '시청각 자료 및 교구필요'가 36.6%로 가장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연계지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서울지역 교사와 시각 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4에서 '영양교육은 학부모가 담당해야 한다'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다.

## 요약 및 결론

경남 창원시와 밀양시에 소재한 급식초등학교 교사 226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교사는 9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밀양 도시형이 창원 농촌형보다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p < 0.001$ ). 영양교육이 필요한 주된 이유는 '적절한 성장발육을 위하여'와 '바른 식사예절을 위하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밀양 도시형 급식학교 근무교사의 78.0%가 '적절한 성장발육을 위하여'에 답한 반면 밀양 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바른 식사예절을 위하여'에 34.1%를 보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5$ ).

2) 영양교육의 시작시기는 '유치원'이 전체의 72.1%로 나타나 초기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창원 도시형 급식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p < 0.01$ ). 적절한 영양교육 담당자는 '학부모' 39.6%, '영양사' 35.5%, '담임교사' 24.9%순으로 나타나 영양사의 영양전문인으로서의 인식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급식유

형별로 보면 창원 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학부모'에 50.0%를 보인 반면 밀양 농촌형 급식학교 근무교사는 '영양사'에 41.7%의 높은 반응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5$ ).

3) 영양교육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교사는 53.6%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업무량 과다' 32.0%와 '전문지식 부족' 29.4%,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 29.4%로 들었다.

4) 초등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을 독립교과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반대한다' 51.6%, '보통이다' 30.6%, '찬성한다' 17.8%로 나타나 영양교육의 독립교과 설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사들이 영양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우선 순위는 '올바른 식습관' 62.7%과 '성장과 영양' 28.6%이였으며,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영양문제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의 과잉섭취' 39.1%, '편식' 36.9%, '식사예절 부족' 19.4% 등으로 나타났다.

6) 영양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는 '가정과 연계지도체계 필요' 38.7%, '시청각자료 및 교구필요' 28.3%에 높은 비율을 보였고, '영양교육 교사 필요'는 10.1%로 저조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교에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아주 높았으나 독립교과로 설치, 운영하는 것과 영양사의 교사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영양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양교육의 교과목 설치와 영양사의 교사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특활시간을 이용한 영양교육, 교사와 연계하여 교과목내 영양관련 내용의 부분교육, 지속적인 영양상담활동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초등학교 영양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체를 개발, 보급하여 미래의 국가주역인 아동의 건강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 참고 문헌

강명희(2000) : 아동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효과 및 영양사의 역할. 대한영양사회 아동건강증진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p.9-22

강현주·김경미·김경자·류은순(2000) : 유치원 영양지원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평가. 한국영양학회지 33(1) : 68-79

경상남도 교육청(1998). 경남교육통계연보, pp.72-73, 경상남도교육청, 경남

구재옥(1999) :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대한영양사회 창립 30주년 기념 전국영양사 학술대회집, pp.37-71

김선희·김숙희(1983) : 학령기 아동의 영양실태와 신체발달 및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6(4) : 253-262

90 · 초등학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 김은경(1996) : 초등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 전략. *국민영양*(4월호) : 2-15
- 김현아 · 김은경(1996) : 학령기 비만아동을 위한 체중조절 프로그램의 실시 및 효과평가. *한국영양학회지* 29(3) : 307-320
- 김혜자(1995) : 식생활의 역사적 변천에 따른 학동기 영양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고찰. *청주교육대 학교 논문집* 32 : 339-377
- 문수재 · 이명희 · 이영미 · 조성숙 · 이민준 · 이승미(1994) : 영양교육 - 실무와 실습을 위한 핸드북 -, 효일문화사
- 대한영양사회 경남지부 학교분과(1993) : 학교급식지도서, pp.9, 대한영양사회 경남지부 학교분과, 경남
- 박복해(1985) : 농어촌과 시설거주 아동의 영양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4(2) : 98-107
- 서은나 · 김초강(1998) : 초등학교 영양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 *한국영양학회지* 31(4) : 787-798
- 송광용(1997) : 학교 영양교육 활성화의 요건. *국민영양*(9월호) : 2-12
- 송광용(2000) : 영양교육 법적 제도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대한영양사회 아동건강증진과 영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pp.25-39
- 염초애 · 김혜리 · 박혜련 · 김향숙 · 김상애 · 박옥진 · 심미경 · 손숙미(1995) : 전국 국민학교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대한영양사학회지* 1(1) : 89-95
- 이경애(1998) : 초등학교급식에서의 영양관리실태조사 - 부산광역시 초등학교들을 중심으로 -. *한국영양학회지* 31(2) : 192-205
- 이경혜 · 박희창 · 허은실(1998) : 식품영양학 전공자를 위한 통계처리 방법론, 효일문화사
- 임경숙 · 한문화 · 김영주(1999) : 보건소 유아영양교육의 효과 평가.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pp.37
- 정은자(1996) :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보건전문대학 논문집* 16 : 21-37
- 한혜영 · 김은경 · 박계월(1997) : 급식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이 아동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식습관, 식품기호도 및 잔식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0(10) : 1219-1228
- Davis SD, Bassler EM, Anderson JV, Fryer HC(1983) :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preschool children. *J Nutr Educ* 15(1) : 4-5
- Graham G.G(1981) : Determinants of growth among poor children, Nutrients intake achieved growth relationships. *AJCN* 34 : 539
- Skinner JD, Cunningham JL, Cagle LC, Miller SW, Teets ST, Andrews FE(1985) : An integrative nutrition education framework for preschool through grade 12. *J Nutr Educ* 17(3) : 75-80